

국내 · 외 언론사 대학평가 현황

이영학 | 동의대학교 교직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국제화와 함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자국 내 및 세계 순위는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1983년 U.S.News에 의해 미국 대학들의 순위가 발표된 이래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언론사들은 자국의 대학 순위를 정기적으로 발

표하고 있다.

대학과 관련된 순위평가는 순위산출 목적에 따라 대학경쟁력 순위평가, 대학 학술역량 순위평가, 기타 순위평가로 구분할 수 있고, 비교 대상의 범위에 따라 국가 내 순위평가, 세계 순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비교 단위에 따라서 대학단위 순위평가와 학문분야별 순위평가로 구분할 수도 있다. 각국의 다양한 대학 단위 순위평가를 순위산출 목적과 비교 대상의 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표1>과 같다.

<표1> 순위산출 목적 및 비교대상 범위에 따른 대학단위 순위평가 분류

	국가 내 순위평가	세계 순위평가
대학경쟁력 순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News의 American Best College(미국) · Washington Monthly의 대학순위(미국) · Top Tier Education Service의 대학순위(미국) · The Times의 대학리그테이블(영국) · Sunday Times의 대학리그테이블(영국) · Guardian의 대학리그테이블(영국) · Maclean's의 대학순위(캐나다) · 중앙일보의 대학종합평가(한국) · 경향신문의 대학지속가능지수(한국) · 관리과학연구원의 대학평가(중국) · (주간)동양경제의 強い大學(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S의 세계대학 순위(영국) · 조선일보-QS의 아시아 대학 순위(한국) · THE-톰슨로이터의 세계대학 순위(영국)
학술역량 순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로리다대학의 The Top American Research Universities(미국) · FSP Index(미국) · Vanguard College Rankings(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교통대학의 세계대학 학술역량 순위(중국) · 유럽위원회의 대학연구력 순위(EU) · 고등교육기관 평가(대만) · 특허영향력 평가(IEEE)

<p>기타 순위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icu.org의 Web Popularity Ranking(미국) · Princeton Review의 America's Best Value College(미국) · College Prowler의 대학순위(미국) · German Funding Ranking(독일) · Google-Ranking(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bometrics의 세계대학 순위(스페인) · University Metric의 G-Factor(미국)
--------------------	---	--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순위평가 중 우리나라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평가는 국내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 그리고 세계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QS 세계대학평가, THE-톱승로이트 세계대학평가,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 상해교통대학 세계대학 학술역량평가로 판단된다. 이중 상해교통대학의 평가를 제외하면 평가주체는 언론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QS는 리서치 전문기업이지만 세계대학평가를 THE와 처음 시작했다는 점에서 QS의 세계대학평가도 언론사 대학평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들 언론기관 순위평가의 특징과 실시 현황을 가급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하였다. 또한 중앙일보의 학과평가는 다른 순위평가들이 대학을 단위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II. 주요 대학순위평가별 실시 현황

1.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는 1994년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소비자에게 대학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중앙일보는 매년 교육여건, 국제화, 연구, 평판 및 사

회진출도의 4개 분야에 대해 4년제 일반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평가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에 응답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0년 대학종합평가를 기준으로 평가준거는 교육여건, 국제화, 연구, 사회평판·진출도 등 4개 평가부문, 3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점수 산출은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Z값을 가중치(T값)의 범위로 선형변환하되 Z값의 중간값(0)을 활용하여 편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010년 대학종합평가와 함께 평가대상 93개 대학 중 온라인 설문에서 '교육중심대학'을 지향한다고 응답한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중심대학평가를 실시했다. 교육중심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 부문이나 국제화 부문 등의 지표는 제외하고 전임교원의 담당 강좌 비율 등 15개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전임교원의 담당 강좌 비율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했다. 강의평가 공개 비율과 인턴 참여 학생 비율 등 두 가지 지표는 2010년 교육중심대학 평가에 처음 도입되었다.

중앙일보의 대학종합평가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 변경, 가중치 변경, 지표값 산출방법 변경, 교육중심대학 평가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실험적 평가방법을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에 대학종합평가와 함께 실시한 대학 효율성 평가나 교육중심대학 평가에서 적용한 평가모형은 타당성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의 대학종합평가는 최근 소비자

의 비판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평가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해 대학과 소통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대학들에게 심층 리포트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표2〉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의 평가부문, 평가지표 및 가중치 (2010년)

평가부문	평가지표
교육여건(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당 학생 수(10) · 교수 확보율(10) ·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5) · 교육비 환원율(10) · 학생 충원율(5) · 세입대비 기부금(5) ·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15) · 기숙사 수용률(5) · 학생당 교육비(15) · 세입 중 납입금 비중(10) · 중도 포기율(5)
국제화(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교수 비율(전임이상)(20) ·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10) · 영어강좌 비율(20) ·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학생 비율(15) ·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5)
연구(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평균교수당 외부지원연구비(15) · 계열평균교수당 자체연구비(10) ·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 게재 수(15) · 인문사회체육 교수당 SSCI, A&HCI 게재 수(20) · 과학기술 교수당 SCI 게재 수(20) · 과학기술 교수당 SCI 논문 임팩트 팩터(5) · 교수당 SCI, SSCI, A&HCI(최근 5년간) 피인용 수(10) · 과학기술교수당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10) ·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10)
사회평판진출도(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10) · 업무에 필요한 전공 또는 교양교육이 제대로 돼있는 대학(10) · 향후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10) · 입학추천하고 싶은 대학(10) · 기부하고 싶은 대학(10) ·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10) · 취업률(10)

*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의 '2010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설명 및 계산법'을 재편집함.

2.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지수

경향신문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ERISS: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Sustainable Society)가 현대리서치 및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 과 공동 기획으로 2010년 대학을 지속가능지수(sustainability indexes)에 의해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ERISS는 2008년부터 주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대학지속가능지수 평가는 교육, 연구, 진로, 소통·형평, 편의의 5개 영역에 17개 평가부문, 67개 조사내용(평가지표)을 통하여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지표의 구성은 〈표3〉과 같다.

가중치는 교육:연구:진로:편의:소통·형평의

비율을 6:4:3:2:1로 하여 총점을 1,600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각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발표하지 않았으며, 교육철학과 가중치를 달리할 경우 총점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본 평가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시 본 평가의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평가절차는 우선 교육, 연구 부문만을 평가하여(설문조사 제외) 상위 30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30개 대학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반영한 점수를 산출하여 발표하였으며, 31위 이하 대학은 설문조사를 제외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점수산출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ERISS의 대학지속가능지수는 대학평가에 대

한 철학적 배경을 달리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발표했지만, 중앙일보의 대학종합평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내용에서 소통·형평 부문이 포함된 점, 설문조사의 대상이 대학외부 3자가 아닌 재학생인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평가지표들은 중앙일보의 대학종합평가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대학지속가능지수에 의한 평가가 새로운 교육철학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평가결과 발표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ERISS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평가지표별 가중치와 점수 산출방법 등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표3〉 대학지속가능지수 부문별 지표 내용

분류	부문	조사내용	분류	부문	조사내용
	교육여건	1) 전임교원확보율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3)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4) 콩나물지수 5) 강의평가	진로	인턴십	1) 기업맞춤형 학과 2)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3) 인턴십 프로그램
	국제화	1) 외국인 교원 비율 2) 외국인 재학생 비율 3) 해외과건학생 비율		진학률	1) 졸업생 진학 현황
교육	등록금	1) 학생1인당 교육비 2) 등록금 인상율 3) 장학금 수혜비율 4) 1인당 장학금 5) 등록금 환원율	편의	취업률	1) 졸업생 취업 현황
				국가고시	1) 국가고시 합격 현황
	학생설문	1) 등록금 효용 2) 교수 강의준비 3) 전공지식 축적에 도움 4) 개설강의 다양 5) 수강신청 6) 지적자극 7) 교육시설 8) 교수피드백 9) 활발한 수업 참여 10) 지적 성장에 도움 11) 삶의 방향 탐색에 도움		도서	1) 장서보유 현황 2) 학생당 장서수 3) 학생당 도서관구입비
				교육기본시설 확보	1) 교육기본시설 확보율
학생설문	1) 등록금 효용 2) 교수 강의준비 3) 전공지식 축적에 도움 4) 개설강의 다양 5) 수강신청 6) 지적자극 7) 교육시설 8) 교수피드백 9) 활발한 수업 참여 10) 지적 성장에 도움 11) 삶의 방향 탐색에 도움	기숙사	1) 기숙사 수용률 2) 학생당 기숙사비		
		학생설문	1) 수강신청시스템 2) 교육시설 3) 정보시스템 4) 행정서비스 5) 학교식당 6) 교내공간 이용 및 대여		

연구	논문	1) 교수당 국내 논문발표 2) 교수당 국제 논문발표 3) 교수당 저·역서	소통 · 형평	계량화 자료	1) 강의소통 기본지수 2) 기회균등 선발학생 비율 3) 장애인 교육시설 여건 4) 교원 성비 5) 비정규직 비율 6) 강의평가 유무 7) 강의평가 공개 여부 8) 재임용 반영 여부
	특허·개발	1) 특허등록 건수 2) 교원당 특허등록 건수 3) 연구개발(성과)			학생설문
	연구비	1) 연구지원금 2) 교수당연구비 3) 연구소 개수 4) 유급인력 5) 연구비 수주액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122216045&code=940401

3. QS 세계대학평가 및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

QS(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는 2004년부터 영국의 고등교육 전문 언론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과 공동으로 시행해 왔으나, 2010년부터는 QS가 독자적으로 시행하

고 있다.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는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QS에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다. 두 대학순위평가는 모두 QS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점이 많다. 두 대학순위평가의 평가준거는 <표4>와 같다.

<표4> QS 세계대학평가와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의 평가지표와 가중치 비교

평가준거	QS 세계대학평가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연구의 질	세계동료평가	40%	아시아 동료평가	30%
	교수당 피인용 횟수	20%	교수당 논문 수	15%
논문당 피인용 횟수			15%	
교육의 질	교수대 학생 비율	20%	교수대 학생 비율	20%
졸업생 고용가능성	세계 고용자 평가	10%	아시아 고용자 평가	10%
국제화	외국인 교원 비율	5%	외국인 교원 비율	2.5%
			외국인 학생 비율	2.5%
	외국인 학생 비율	5%	인바운드 교환학생 비율	2.5%
			아웃바운드 교환학생 비율	2.5%

*출처 : <http://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asian-university-rankings/methodology/asia-world>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는 QS 세계대학평가의 평가지표에 인바운드 교환학생과 아웃바운드 교환학생, 논문당 피인용 횟수를 추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 동료평가와 고용자평가의 설문조사 대상은 세계대학평가가 세계 학자와 인사담당자인데 반해 아시아대학평가는 아시아 지역 학자와 인사담당자들로 차이가 있다.

점수산출방법으로 QS 세계대학평가는 표준점수를 이용하며,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는 100점 대비 점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대학평가의 경우 평가결과 발표시 종합순위와 함께 5개 학문분야별로 구분한 순위도 발표하고 있다.

이들 두 평가는 다른 순위평가에 비하여 제한된 평가지표만을 활용해 점수를 산출하고 있고, 논문관련 지표를 제외하고는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문조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설문조사의 비중은 QS 세계대학평가가 50%,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한계점은 2010년 THE가 QS와 결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4. THE-투스론티터의 세계대학평가

2010년 THE는 2004년부터 세계대학평가를 실시해 오던 QS와 결별하고 세계적인 연구평가기관인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와 공동으로 새로운 세계대학평가를 실시하였다. THE는 홈페이지에서 QS와 결별한 이유로 2009년까지 THE와 QS가 공동으로 실시한 세계대학평가의 평가방법은 설문조사 비중이 너무 높고 설문조사 응답자 수가 너무 적으며 표집방법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THE에 의하면 2009년 세계대학평가에서 설문조사 응답자 수는 약 3,500명이었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설문 응답자 수는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응답자 분포에 있어서도 2008년의 경우 독일은 182명인데 반해 영국은 563명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THE는 톰슨로이터를 새 파트너로 하여 THE-QS의 세계대학평가보다 투명하고 탄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THE-투스론티터 세계대학평가의 평가지표와 가중치는 <표5>와 같다.

<표5> THE-투스론티터 세계대학평가의 평가지표와 가중치

평가부문	평가지표
교육환경(30%)	· 수업에 대한 명성도 설문(15%) · 교수당 입학생 수(4.5%) · 학사 수여자 대비 박사 수여자 비율(2.25%) · 교수당 박사학위 수여자 수(6%) · 교수당 소득(2.25%)
연구실적(30%)	· 연구역량 명성도 설문(19.5%) · 교수당 논문 수(4.5%) · 연구비(5.25%) · 연구비 중 공공수탁연구비 비율(0.75%)
인용실적(32.5%)	· 인용지수(32.5%)
산업계 연구비(2.5%)	· 교수당 산업계 수탁 연구비(2.5%)
국제화(5%)	· 외국인 교직원 비율(3%) · 외국인 학생 비율(2%)

*출처 : <http://www.timeshighereducation.co.uk/world-university-rankings/2010-2011/analysis-methodology.html>

THE-톱슨로이터 세계대학평가는 연구중심대학에 초점을 맞춘 평가로 볼 수 있다. 국제화 부문의 2개 지표와 교육환경 부문의 수업에 대한 명성도 설문, 교수당 입학생 수, 교수당 소득의 총 5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지표는 사실상 연구중심대학과 박사학위 수여대학에 적합한 평가지표이며, 이들 8개 평가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73.25%이다. 또한 설문조사의 비중도 34.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THE-톱슨로이터는 2010년 평가에서 13,38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지역 및 학문분야의 분포가 고르며 10개월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신뢰성 높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QS와는 달리 국가와 학문분야별 설문응답자 분포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점수계산은 Z-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THE-톱슨로이터의 세계대학평가는 2010년 처음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QS의 세계대학평가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연구중심대학 내지 박사학위 수여대학만을 위한 평가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III. 나오는 말

2010년 우리나라에서 언론기관에 의한 순위평가는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사의 대학순위평가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고등교육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모든 대학에 획일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대학이 고유 목적을 달성하고 특성화를 추구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어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순위평가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순위평가를 계속 시행하고자 한다면 피평가자인 대학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학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결과 발표에 있어서도 구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보다는 고등교육 발전의 공감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필·자·소·개

이영학

1995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서 연구원으로서 대학평가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현재는 동의대학교 교직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연구 주제는 대학평가를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관련 분야이다.